# RACE & CULTURE

## A Story of Humanity Beyond Borders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Gillettenarrative.com

# GILLETTE: 인종과 문화

나는 한때 리스본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여섯 달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오늘, 인류의 가장 불운한 장 가운데 하나를 — 인종차별이라는 현상을 — 기억하기 위한 날에, 나를 바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다.

내가 도착한 그 아파트는 리스본의 가장 끝자락 외곽,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 가운데 하나에 있었다. 대부분 포르투갈어를 쓰는 곳이었고, 브라질, 앙골라, 상투메, 모가디슈,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 몇 명이 있었다.

언어는 내게 낯설었지만, 몇몇 속어는 내 도시의 방언 형태를 떠올리게 했다 —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때 내 고향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역사의 기억은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것이었다.

나를 늘 웃게 만든 표현 하나는 그들이 포르투갈어로 FOCU MEU라고 말할 때였다 — 칼라브리아 방언에서도 똑같은 뜻이다.

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Alfonso, Osvaldo, Paolo, Roberto, Antonio, Ramon은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나를 기다렸다.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그들은 내 이야기를 원했다.

전설이 된 이야기 하나는 bruschetta, bussetta, busadero에 관한 것이었다 — 세 단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 나는 그것을 가지고 놀며 이야기를 엮었고, 못 알아듣는 척하며 일부러 말을 겹치고 오해를 만들어 냈다. 그러면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들은 내게 포르투갈어로 이야기하게 했고,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나는 일종의 해방처럼 이탈리아어로 “vaffanculo”를 내뱉었다. 그러면 모두가 웃었다.

아무도 내 피부색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나는 그토록 많은 다른 색들 사이에서 유일한 백인이었지만, 저녁마다 모여 앉으면 우리는 행복과 웃음의 무지개였다.

그들은 내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있도록 챙겨 주었고, 그것을 품위와 우아함으로 해냈다. 그러면서 나를 소통의 교수, 여자들에게는 악동, 그리고 자기 머리를 착취하지 않고 내주는 보물로 바꾼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나를 읽는 이에게: 움직이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다 —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이 찾아온다. 오직 포르투갈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

*안녕, 친구들,*
*Ferdinando*